

Q방법론을 활용한 지역사회복지 인식의 유형화

The Typology of the Perception on Community Welfare using the Q Methodology

이도희*, 박희정**, 김원세**
충남대학교 경영학부*, 공주대학교 사회복지학과**

Doh-Hee Lee(2dohee@hanmail.net)*, Hee-Jung Park(eos29@naver.com)**,
Won-Se Kim(samsa32@hanmail.net)**

요약

본 연구는 사회복지의 한 영역인 '지역사회복지'에 대한 이해와 인식을 진단하고자 하였다. 무엇보다 일련의 진단을 위하여 질적연구방법인 Q방법론을 활용하여 지역사회복지에 대한 인식을 유형화하였다. 분석결과, 지역사회복지에서 회자되고 학습되고 있는 다양한 용어(Q표본)를 확보하고, 이들 용어에 대한 인식의 유형을 살펴보았다. 분석을 위하여 29명의 응답자인 P표본에게 29개의 진술문인 Q표본을 확보하여, Q표본에 대한 Q분류를 실시하여 인식을 유형화하였다.

분석결과, 3개의 유형으로 정의되었다. 즉, <유형 I>은 '주민참여', '유대관계 형성', '주민 삶의 질 향상' 등을 강조하고 있어, 「주민 삶의 질-유대관계강조형」으로 명명하였다. <유형 II>는 '주민 삶의 질 향상', '지역사회 욕구충족'을 강조하고 있어 「주민 삶의 질-지역사회욕구충족형」으로 명명하였다. <유형 III>은 '주민참여'와 '주민 삶의 질 향상'을 강조하고 있어 「주민참여-주민 삶의 질 향상형」으로 명명하였다. 또한, 유형화결과를 바탕으로 유형별 응답자 특성에 대한 교차분석을 실시한 결과, 개인적 특성별로 지역사회복지에 대한 인식에 차이가 있음을 발견할 수 있었다. 이로써, 가설발견적 접근방법으로써의 유용성을 체고 하여 향후 계량연구로의 확장연구를 기대한다.

■ 중심어 : | Q방법론 | 지역사회복지 | 유형화 | 가설발견적 접근 |

Abstract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examine the understanding and perception of 'community welfare', a domain of social welfare. First of all, we used the Q methodology, a qualitative research, to typology the recognition of community welfare. For the analysis, we have obtained various terms (Q samples) that have been discussed and learned in the community welfare, and examined the types of recognition of these terms. For the analysis, 29 samples of P samples were obtained from 29 samples of P samples.

As a result of analysis, three types were defined. In other words, <Type I> emphasizes 'participation of residents', 'building ties', and 'improvement of life quality of residents' is named it 「Quality of residents life-Relationship Type」. <Type II> emphasizes 'improvement of quality of life of residents' and 'satisfaction of community needs' and named it 「Quality of residents life- Desire for community needs Type」. <Type III> emphasizes 'participation of residents' and 'improvement of quality of life of residents' and named it 「Participation of Residents-Quality of Life Type」. The respondents' characteristics according to type, it was found that there was a difference in recognition of community welfare by individual characteristics. So, we hope to enhance the usefulness of the hypothesis abductive approach and to extend the study to future quantitative research.

■ keyword : | Q methodology | Community Welfare | Typology | Abductive Approach |

I. 서론

‘지역사회(community)’란 공통의 이익을 가지고 있거나 같은 지역에 사는 개인들의 집단. 지역사회복지는 지역주민과 사회적 약자들의 복지증진을 위한 사회복지의 한 방법적인 영역이다[1][2]. 따라서, ‘지역사회복지(community welfare)’란 개인복지나 가정복지보다 넓은 차원의 개념으로, 아동복지, 청소년복지, 노인복지, 장애인복지라는 대상층 중심의 복지활동보다는 지역성이 뚜렷하다는 데에서 그 차이를 발견할 수 있다[2][3]. 즉, 지역사회복지는 지역사회단위가 가지는 강점 즉, 정확한 욕구과약과 자원개발의 효율화, 민감한 서비스제공의 현실화 등의 실현을 목적으로 해야 한다. 이러한 지역단위의 복지실현을 위해서는 지역의 특성 즉, 지역의 인구구성, 욕구, 자원 등에 맞는 지역 나름의 계획이 필요하다는 논의가 계속되어왔다[1].

2003년 개정된 사회복지사업은 시군구 및 시도단위로 4년단위의 지역사회복지계획 및 그 연차별 시행계획을 수립 및 시행하도록 규정하여, 사회적 요청을 실현시킬 법적 근거를 제공하였다. 이에 따라서, 제1차 지역사회복지계획의 적용기간은 2007년 1월부터 2010년 12월까지이며, 제1차 계획수립시기는 지역보건법에 의한 제3차 지역보건의료계획의 적용기간(2007~2010)과 일치되도록 고려된 것이다. 이는 지역보건의료 계획과의 연관성을 확보하기 위한 조치였던 것이다. 따라서, 진정한 지역사회의 복지실현은 바로 지역사회복지계획의 수립에서의 출발이라 하겠다[4][5].

이렇듯, 지역복지계획은 각 지방자치단체가 지역복지를 종합적이고 계획적으로 추진하며, 사회복지사업법에서 제시하는 사회복지이념을 달성하기 위한 전반적인 계획과정을 의미한다. 이를 위해 지역주민들의 양적, 질적 서비스요구에 대한 진단과 서비스를 충족시키기 위하여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종합적으로 행정계획을 추진하는 것을 의미한다[5-7].

미국에서 도입된 우리나라의 지역사회복지이론은 지역사회복지라는 과목으로 변경되어 학습이 이루어지면서, 그 범주는 크게 변화되어 왔다. 즉, 1960년대 일본이 고령화사회에 진입하면서 시설복지를 중심으로 하는

사업에서 지역사회를 중심으로 하는 재가복지사업을 지역복지의 범주에 포함시킨 것과 관련한다 하겠다[1][7]. 따라서, 우리나라 지역사회복지는 미국의 지역사회조직 이론과 일본의 지역복지이론, 그리고 자원이 부족한 우리나라에 자원개발 및 사회운동 관련 이론들이 복합적으로 도입하여 활용되면서 하나의 영역을 형성하게 되었다[3][6].

한편, 1990년대의 지역사회복지의 학습경향은 미시적 접근을 강조하는 대학과 재가복지와 모금개발 사회운동 등 거시적 접근을 강조하는 대학으로 병존하여왔다. 또한 지역사회복지의 학습내용은 지역사회조직화 이론을 중심으로 학습하는 대학과 이를 포함하는 지역사회의 실천기관과 공동모금이나 후원자개발 등의 인적, 물적 자원개발이론과 재가복지이론 등을 교수하는 대학으로 양분되어 왔다. 그러나, 2000년도 이후에는 사회복지사 1급 국가시험이 시행되면서 지역사회복지의 학습내용은 점차 보편화되었다고 할 수 있다[6][7]. 따라서, 21세기 사회복지의 패러다임은 크게 [그림 1]과 같이 사회복지실천 및 기술영역, 사회복지정책영역, 지역사회복지영역로 구성할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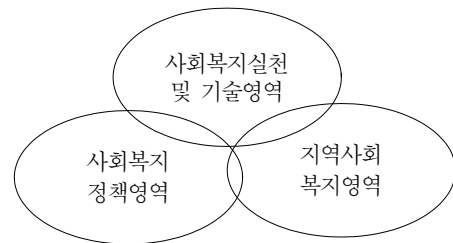


그림 1. 사회복지의 뉴 패러다임[1]

지역사회복지는 지역사회단위가 가지는 고유의 특징을 고려함으로써 그 강점을 발휘할 수 있도록 수행되어야 한다. 이를 위해 정확한 욕구과약과 효율적인 자원개발, 민감한 서비스제공의 현실화 등에 대한 고민이 지속적으로 이어져 왔다[7][8]. 또한, 이러한 수행계획이 지역복지계획이며, 이러한 지역복지계획은 주민의 복지욕구를 질적·양적으로 파악하고, 그 욕구를 충족시키기 위한 서비스 공급체계를 확보하는 일련의 과정을 포함한다. 또한 이를 위해 필요한 인력, 재원, 시설,

기관, 조직, 단체 등의 사회자원을 조달하고 배분하기 위한 유용한 수단이 되어야 한다[8][9].

이에 본 연구는 지역사회복지와 관련한 다양한 정책 및 시스템 관련 용어에 대한 사회복지실무자 및 학습자를 대상으로 인식을 살펴보았다. 특히, 분석을 위하여 질적연구방법인 ‘Q방법론’을 활용하여 인식을 유형화하였다.

‘질적연구(qualitative research)’는 질적연구만의 고유한 연구전통을 바탕으로 수행해야 한다. 따라서, 연구자는 질적연구를 위한 복잡적이면서도 종합적으로 볼 수 있는 식견을 바탕으로[10][11], 질적연구를 위한 연구자는 사회현상에 대하여 “인물이나 사물을 있는 그대로(people or things as they are)”를 바라보면서 그 본질적 속성을 발견할 수 있어야 한다[12-14]. 이러한 질적연구의 하나인 Q방법론은 국내에 언론학연구자였던 김홍규교수에 의하여 소개되어진 이후에 다양한 학문 영역에서 유용하게 활용되어오고 있다.

이에, 본 연구는 사회복지의 한 분야인 지역사회복지 연구에 대한 사회복지관계자들의 이해와 인식을 진단하고자 ‘Q방법론’을 활용하였다. 즉, 사회복지관계자들이 이해하고 생각하고 있는 ‘지역사회복지’는 과연 무엇인가에서 출발하였다. 이렇게 출발하여 관련 용어(진술문)를 확보하여, 이에 대한 유형화를 실시하였다. 특히, 유형화결과를 바탕으로 응답자들의 특성을 파악하고, 그에 따른 인식을 진단하는 ‘주관성연구(subjective study)’ 또는 ‘가설발견적 접근(abductive approach)’의 ‘Q방법론’이다. 따라서 향후 연구에서는 발견된 가설의 검증에 대한 실증연구로의 확장을 기대한다.

II. 연구방법

1. 주관성연구, Q방법론의 이해

Q방법론은 1935년 Stephenson에 의해 소개되었으며, 이전의 객관적 시각을 위한 계량연구와 달리, 인간의 주관성 및 내면적 인식과 특성을 측정하는데 유용한 연구방법으로 소개되었다[15][16], 특히 그는 인간의 감정, 동인, 동기, 꿈, 희망, 구려움, 야망 그리고 확신 등을

담고 있는 ‘블랙박스’인 ‘자아’를 조작한다는 것이 쉬운 일은 아니지만, 무시할 수 없는 것임을 강조하였다[16].

Stephenson(1953)은 의사전달의 주관적 형태 안에서 모든 메시지, 개념, 관념, 아이디어, 제스처, 대상에 관하여 통합체가 존재하며, 이것이 바로 Q방법론의 분석을 위한 자료임을 강조하였다. Stephenson의 과학관은 발견(discovery)에 초점을 맞추어져 있으며, 이해(understanding)에 도달하기 위해 법칙과 이론, 도구의 사용을 강조하였다[15][16]. 이것은 사실(fact)에 바탕을 두고 있는 과학자를 위한 설명과 해석과는 구별된다. 과학자는 사실을 바탕으로 그들의 바깥세계를 변화시키려 하지만, 이해하기란 그들의 외부세계에 있는 것들을 그대로 놓아두는 것이다[16][17].

이와같은 주장은 기존 방법론이 이론으로부터 가설을 만들어 이를 검증하는 이른바 가설연역적(hypothetic-deductive)방법 즉, ‘가설로부터 시작하는 논리(reasoning from the hypothesis)’라고 한다면, Q방법론은 ‘가설로 향하는 논리(reasoning to the hypothesis)’ 또는 ‘가설발견’의 논리인 것이다. 즉, 가설연역적 방법보다 선행해야하는 ‘가설발견’의 ‘abduction’이라는 것이다[18][19]. 따라서 Q방법론을 ‘가설발견적 접근’ 또는 ‘주관성연구’라고도 한다[17][20][21].

2. 분석과정

1) Q표본선정과 P표본선정

‘지역사회복지’와 관련한 용어에 대한 모집단을 우선적으로 확보하기 위하여, 실무자를 대상으로 ‘지역사회복지’와 관련한 용어를 추출하였다. 이들 용어들을 정리하여 최종 29개의 Q표본을 선정하였다. 이렇게 선정된 표본은 Q진술문(Q-statement) 또는 Q표본(Q-sample)이라 하여 분석에 사용한다[15].

여기서 진술문은 최종 표본으로 정리하는 과정을 ‘coding’과정이라 하고, 이러한 ‘coding’과정은 계량연구에서의 조사결과와 입력과정처럼, 조사대상과의 인터뷰를 바탕으로 확보된 인터뷰진술문을 기록하는 과정을 의미한다[20]. 따라서, 질적연구에서의 coding은 분석의 출발이다. 한편, 본 연구에서는 [표 1]와 같이 최종

Q표본을 선정하였다.

한편, 응답자인 'p표본'은 현장경험이 있는 사회복지사와 사회복지학을 전공하는 대학생を対象으로 하였다. 이들은 모두 교과목에서 지역사회복지를 학습한 경험이 있음을 제고하여 표본으로 선정하였다. 또한, P표본은 Q표본과의 동일수준의 추출을 제고하여 29명을 선정하였다[15][21].

표 1. 영역별 Q표본

공공복지	이해관계집단 관리	효율적 지방정부운영
지역사회교육	지역사회통합	개별적 보후서비스
주민참여	지역사회개발	지역사회관계망 형성
지역공동모금	관계중심 목표수립	과정중심 목표수립
지역사회복지협의회	민간복지서비스 활성화	주민삶의 질 향상
재가복지	지역고유 전통유지	과업중심의 목표수립
공동연대의식	지방자치단체	지방분권화
유대관계 형성	미래지향적 운영	타지역사회와의 네트워크
상호부조서비스	지역사회 갈등해소	지역민주주의
협력적 관계	지역사회 욕구충족	

2) Q분류과정

Q분류(Q-sort)는 Q표본과 P표본의 선정이 끝나면, P표본에게 일정한 방법으로 Q표본을 분류하도록 하여, 다루고자 하는 Q표본의 중요도를 파악하는 과정이다. [그림 2]는 P표본 응답자들이 응답해야하는 Q분류표이다. 응답자들은 그림의 빈칸에 반드시 1개의 Q표본을 배치해야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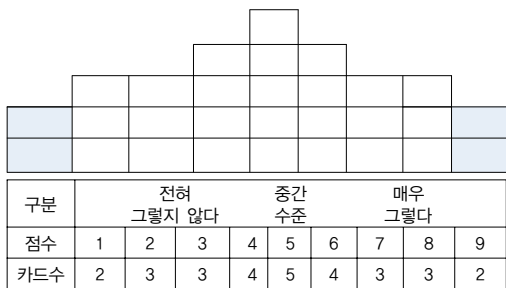


그림 2. Q분류표

이처럼, Q분류과정은 강제적 분류(forced distribution) 과정으로, Q방법만의 특성이자 응답자에게는 강제적 분류에 따른 부담감이 있을 수 있다. 즉, 일련의 작업을 위해서 응답자는 자신의 주관적인 생각

을 바탕으로 응답을 해야한다는 특성을 갖고 있다[21].

3) 자료처리 및 분석

이상의 처리를 바탕으로 P표본의 응답결과를 'QUNAL프로그램'에 입력하여 결과를 처리하게 된다. 분석결과는 유형화 결과가 도출되고, 각 유형에는 응답자인 P표본의 분포와 유형별 Q표본의 표준점수가 산출된다. 산출된 표준점수의 결과를 바탕으로 각 유형을 해석한다. 특히, 본 연구에서는 29개의 진술문은 표준점수가 ±1.0을 기준으로 강한 긍정(+1.0이상)과 강한 부정(-1.0이하) 진술문을 중심으로 분석 및 해석하였다. 일련의 분석결과는 다음과 같다.

III. 분석결과

1. 유형화 결과

[표 2]는 분석결과를 나타내고 있다. 즉, 유형화 분석 결과, 3개의 유형으로 정의되었고, 각 유형별 설명력은 <유형 I>은 27.56%, <유형 II>는 19.97%, <유형 III>은 6.15%로 전체 53.67%를 나타냈다.

표 2. 유형별 eigen값과 설명변량

구분	<유형 I>	<유형 II>	<유형 III>
	주민삶의 질 - 유대관계 강조형	주민삶의 질 -지역사회 욕구충족형	주민참여 -주민삶의 질 향상형
Eigenvalues	7.9911	2.8914	1.7824
변량 %	0.2756	0.1997	0.0615
누적변량 %	0.2756	0.4753	0.5367

[표 3]는 각 유형별로 응답자인 P표본의 구성을 나타내고 있다. 특히 각 유형별 P표본의 인자가중치는 그 유형의 설명력이라 할 수 있다. 분석결과, <유형 I>은 사회복지사의 분포가 높고, <유형 II> <유형 III>은 대학생은 응답분포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지역사회복지에 대한 관심도는 <유형 I>을 구성하고 있는 P표본의 응답자들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만족도는 전반적으로 보통수준으로 나타났다.

표 3. 유형별 응답자 분포

유형	인자 가중치	성별	연령	직업	관심도
<유형 I> (10명) 주민 삶의 질- 유대관계강조형	1.83	남	30	사회복지사	크다
	1.73	여	30	사회복지사	보통
	1.26	남	36	사회복지사	크다
	1.23	여	27	사회복지사	크다
	1.20	여	21	대학생	크다
	1.11	여	26	사회복지사	크다
	0.98	여	21	대학생	크다
	0.91	남	40	사회복지사	크다
	0.76	남	36	사회복지사	크다
	0.40	남	24	대학생	크다
<유형 II> (12명) 주민 삶의 질- 지역사회육구 충족형	1.38	남	23	대학생	보통
	1.15	여	20	대학생	보통
	1.01	남	23	대학생	보통
	1.00	남	28	대학생	보통
	0.83	여	20	대학생	보통
	0.82	여	21	대학생	크다
	0.77	여	20	대학생	보통
	0.74	여	20	대학생	보통
	0.72	여	21	대학생	크다
	0.61	남	22	대학생	보통
<유형 III> (7명) 주민 참여- 주민 삶의 질 향상형	0.44	여	39	사회복지사	보통
	0.40	여	31	대학생	보통
	1.18	남	23	대학생	보통
	1.04	남	22	대학생	보통
	0.86	여	21	대학생	보통
	0.77	여	28	사회복지사	크다
0.71	남	23	대학생	크다	
0.65	여	20	대학생	보통	
0.36	여	20	대학생	보통	

표 4. 유형간 상관관계

구분	<유형 I> 주민 삶의 질 - 유대관계 강조형	<유형 II> 주민 삶의 질 - 지역사회 육구충족형	<유형 III> 주민 참여 - 주민 삶의 질 향상형
유형 I	1.00	.40	.57
유형 II		1.00	.35
유형 III			1.00

[표 4]는 [표 5]을 바탕으로 한 유형간 상관관계를 나타내고 있다. <유형 I>과 <유형 III>이 0.57로 상대적으로 다소 높은 상관관계를 나타내고 있다.

[표 5]은 P표본이 응답한 Q표본의 분포를 나타내고 있다. <유형 I>은 '주민 참여', '주민 삶의 질 향상' '유대관계형성' 등의 표준점수가 높게 나타났다. <유형 II>는 '주민 삶의 질 향상', '지역사회 육구충족'이 높게 나타났고, <유형 III>은 '주민 참여', '주민 삶의 질 향상'이 높게 나타났다. 따라서, 각 유형별 Q진술문의 분포를 바탕으로, <유형 I>을 「주민 삶의 질-유대관계 강조

형」, <유형 II>를 「주민 삶의 질-지역사회육구 충족형」, <유형 III>은 「주민 참여-주민 삶의 질 향상형」으로 명명하였다.

표 5. Q표본의 표준점수 분포

진술문	<유형 I> 주민 삶의 질 - 유대관계 강조형	<유형 II> 주민 삶의 질 - 지역사회 육구충족형	<유형 III> 주민 참여 - 주민 삶의 질 향상형
1. 공공복지	-0.2	0.8	0.6
2. 지역사회교육	-0.5	-1.0	1.3
3. 주민참여	2.0	-0.3	2.4
4. 지역공동모금	-1.4	-1.0	-0.8
5. 지역사회복지협의회	-1.5	-0.2	-0.7
6. 재가복지	-1.1	0.0	-1.4
7. 공동연대의식	0.4	-0.9	1.0
8. 유대관계형성	1.5	-1.0	1.0
9. 상호부조서비스	-0.4	-0.7	-0.9
10. 협력적 관계	1.2	-0.1	0.7
11. 이해관계집단관리	-0.4	-0.8	-0.8
12. 지역사회통합	0.3	0.7	0.7
13. 지역사회개발	-0.9	1.2	-0.2
14. 관계중심 목표관리	0.6	-1.2	-1.3
15. 인건복지서비스 활성화	0.1	-0.4	-0.9
16. 지역고유 전통유지	-1.8	-1.4	-0.4
17. 지방자치단체	-0.4	-0.1	0.1
18. 미래지향적 운영	0.1	0.4	0.1
19. 지역사회 갈등해소	0.4	1.5	0.7
20. 지역사회 육구충족	1.1	2.1	1.3
21. 효율적 지방정부운영	0.5	0.6	-0.9
22. 개별적 보호서비스	-0.8	0.5	-0.8
23. 지역사회 관계망형성	0.7	0.8	0.3
24. 과정중심 목표수립	0.8	-0.7	-0.8
25. 주민 삶의 질 향상	1.9	2.7	1.6
26. 과업중심 목표수립	-0.9	-0.9	-1.9
27. 지방분권화	-1.1	-0.7	0.4
28. 타지역사회와의 네트워크	-1.1	-0.6	0.0
29. 지역민주주의	0.8	0.5	-0.3

2. 유형별 분포

1) <유형 I>, 주민 삶의 질-유대관계 강조형

<유형 I>에서는 '주민 삶의 질 향상', '주민 참여', '유대관계 형성', '협력적 관계' '지역사회육구충족' 등을 강조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에, '지역고유 전통 유지', '지역사회복지협의회', '지역공동모금'과 같은 표본에 대하여는 낮은 분포를 나타냈다.

표 6. <유형 I>의 Q표본 분포(±1.0이상)

Q-표본	표준점수
•주민 삶의 질 향상	2.01
•주민참여	1.87
•유대관계 형성	1.45
•협력적 관계	1.24
•지역사회 욕구충족	1.06
•재가복지	-1.08
•지방분권화	-1.10
•타지역사회와의 네트워크	-1.15
•지역공동모금	-1.43
•지역사회복지협의회	-1.49
•지역고유 전통유지	-1.78

2) <유형 II>, 주민 삶의 질-지역사회욕구충족형

<유형 II>에서는 ‘주민삶의 질 향상’, ‘지역사회욕구충족’, ‘지역사회갈등해소’, ‘지역사회개발’ 등을 강조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에, ‘지역고유 전통유지’, ‘관계중심 목표관리’, ‘지역공동모금’, ‘유대관계형성’과 같은 표본에 대하여는 낮은 분포를 나타냈다.

표 7. <유형 II>의 Q표본 분포(±1.0이상)

Q-표본	표준점수
•주민 삶의 질 향상	2.72
•지역사회욕구충족	2.11
•지역사회갈등해소	1.50
•지역사회개발	1.20
•유대관계형성	-1.00
•지역공동모금	-1.04
•관계중심 목표관리	-1.17
•지역고유 전통유지	-1.37

3) <유형 III>, 주민참여-주민 삶의 질향상형

<유형 III>에서는 ‘주민참여’, ‘주민 삶의 질 향상’, ‘지역사회교육’, ‘지역사회욕구충족’, ‘공동연대의식’ 등을 강조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에, ‘과업중심의 목표수립’, ‘재가복지’, ‘관계중심 목표관리’과 같은 표본에 대하여는 낮은 분포를 나타냈다.

표 8. <유형 III>의 Q표본 분포(±1.0이상)

Q-표본	표준점수
•주민참여	2.43
•주민삶의 질 향상	1.56
•지역사회교육	1.31
•지역사회욕구충족	1.30
•관계중심 목표관리	-1.32
•재가복지	-1.44
•과업중심의 목표수립	-1.91

3. 가설발견 및 논의

본 연구는 지역사회복지와 관련한 여러 용어에 대하여 어느 정도 인식하고 있는지에 대한 인식의 유형화를 실시하였다. 유형화결과를 바탕으로, 각 유형별 응답자의 특성별 분포를 [표 9][표 10]과 같이 교차분석을 실시하였다.

표 9. 유형별 응답자 특성 교차분석

구분	유형1	유형2	유형3	$\chi^2(p)$
사회복지사	7(70.0)	1(16.7)	1(14.3)	10.90 (0.004)
대학생	3(30.0)	11(83.3)	6(85.7)	
계	10(100)	12(100)	7(100)	

표 10. 유형별 사회복지 관심도 교차분석

구분	유형1	유형2	유형3	χ^2
관심크다	9(90.0)	2(16.7)	2(28.6)	12.85 (0.002)
관심보통	1(10.0)	10(83.3)	5(71.4)	
계	10(100)	12(100)	7(100)	

교차분석 결과, 유형별로 개인적 특성별로 지역사회복지에 대한 인식에 차이가 있음을 발견할 수 있었다. 따라서, 이를 바탕으로 다음과 같이 가설을 발견 및 설정할 수 있다.

<가설> 응답자의 개인적 특성별 지역사회복지 용어에 대한 인식에 차이가 있다.

이와같이 지역사회를 위한 지역사회복지 실현에 대한 인식에는 사회복지실천 현장에의 관여정도 및 관심 정도에 따라서 차이가 있음을 알 수 있다. 즉, 사회복지 실무현장에서의 관여도가 높은 사회복지사의 경우에는 일반인보다는 사회복지현장에 대한 체험을 바탕으로 한 기본적인 인식과 자질 및 그에 따른 관심도, 그에 따른 서비스의 질 등에 영향을 미침에 대하여 선행연구에서도 논의된 바 있다[5][22][23]. 즉, 사회복지사의 전문성 및 사회적지지는 직무만족도 및 직무에 대한 충성도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침을 검증한 바[22][23][25], 사회복지사의 실무경험에 따른 인식과 이해는 실무경험이 상대적으로 적은 대학생들과는 차이가 있음을 본 연구 결과에서도 발견할 수 있다.

표 11. 유형간 공통의견(±1.0이상)

Q-표본	표준점수
•주민 삶의 질 향상	1.26
•지역사회육구충족	1.11
•주민참여	1.05

한편, [표 11]는 3개의 유형 간에 일치도가 높은 진술문을 나타내고 있다. 즉, ‘주민삶의 질 향상’, ‘지역사회육구충족’, ‘주민참여’ 등은 선행연구에서도 강조되어진 지역사회복지에 대한 공통적인 중요한 실천과제임을 알 수 있다[24][25]. 따라서 지속성장가능한 지역사회복지의 실천을 위해서는 ‘주민 삶’과 ‘주민참여’를 위한 ‘지역사회 육구충족’의 실현에 있음을 제고해야 할 것이다.

IV. 결론

사회복지분야 특히, 우리의 일상에 가까이 있는 ‘지역’이라는 영역에 대한 지역사회복지분야의 연구는 그동안 사례 및 문헌연구 그리고 실증연구를 바탕으로 이루어져 왔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지역사회복지의 고유 특성을 제고하고, 연구방법의 다양화와 다차원적인 연구방법론의 활용의 일환으로 질적연구방법인 ‘Q방법론’을 활용하였다. 분석을 위하여 ‘지역사회복지’와 관련한 다양한 이슈 및 개념과 용어 등을 정리하여 최종 Q표본 29개를 선정하였다. 또한 Q표본에 대한 인식의 유형화를 위한 P표본 29명을 사회복지실무자와 사회복지학과 대학생을 대상으로 조사하였다. 분석결과, 다음과 같다.

첫째, 유형화결과, 3개의 유형으로 정의되었고, 각 유형별 설명력은 <유형 I>은 27.56%, <유형 II>는 19.97%, <유형 III>은 6.15%로 전체 53.67%를 나타냈다.

둘째, 3개의 유형을 구성하고 있는 진술문(Q표본)과 응답자(p표본)의 내용을 바탕으로 각 유형을 명명하였다. 즉, <유형 I>은 ‘주민참여’, ‘유대관계 형성’, ‘주민 삶의 질 향상’ 등을 강조하고 있어, 「주민 삶의 질-유대관계 강조형」으로 명명하였다. <유형 II>는 ‘주민 삶의 질 향상’, ‘지역사회 육구충족’을 강조하고 있어 「주민 삶의 질-지역사회육구 강조형」으로 명명하였

다. <유형 III>은 ‘주민참여’와 ‘주민삶의 질 향상’을 강조하고 있어 「주민참여-주민삶의 질 향상형」으로 명명하였다.

셋째, 유형화결과를 바탕으로, 유형별 응답자 특성에 대한 교차분석을 실시한 결과, 개인적 특성별로 지역사회복지에 대한 인식에 차이가 있음을 발견할 수 있었다. 따라서, “응답자의 개인적 특성별 지역사회복지용어 인식에 차이가 있다”는 가설을 발견할 수 있었다.

분석결과를 바탕으로, 지역사회복지에 대한 인식에 있어서 ‘주민삶의 질 향상’, ‘지역사회육구충족’, ‘주민참여’ 등은 지역사회복지 실천과 실현을 위해서 필요한 실천과제임을 알 수 있었다. 따라서 향후연구에서는 보다 구체적인 지역주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지역주민 참여적인 지역사회복지 활성화 방안을 기대한다.

본 연구에서 활용한 Q방법론은 Stephenson에 의하여 소개되었고, 이후 많은 연구가들에 의하여 확산되었다. 특히 국내에서는 김홍규 교수에 의하여 활발하게 연구되어져 왔었다. 이러한 Q방법론은 계량 연구에서 사용하는 규격화된 척도나 정형화된 측정도구를 사용하지 않는다. 즉, 누군가의 태도, 사고 및 생각, 행동 및 움직임, 그리고 상호작용 등의 다양한 현상을 “있는 그대로 바라보면서” 연구는 출발한다. 따라서, 일련의 과학적 연구과정은 연구방법(method)이상의 ‘방법론(methodology)’이다. 다만, 주관성을 바탕으로 하는 질적연구의 한계점을 배제할 수 없으므로, 향후 연구에서는, 좀더 많은 표본을 대상으로 한 실증연구로의 확장을 모색하고자 한다.

참고 문헌

- [1] 김범수, 신원우, *지역사회복지론*, 공동체, 2018.
- [2] 김현호 등, *지역사회복지론*, 양서원, 2016.
- [3] 강대선, 류기형, 손지현, “지역사회복지조직의 관계혜택이 노인자원봉사활동만족도와 지속의지에 미치는 영향,” *한국지역사회복지학*, Vol.52, pp.199-224, 2015.
- [4] 채현탁, 유애정, 박태영, “시군구 지역사회복지계획 수립 매뉴얼의 발전 방향에 관한 연구,” *지역*

- 사회복지학, Vol.48, pp.249-268, 2014.
- [5] 심미승, “지역사회복지관점에서 로컬거버넌스 특성 분석,” 한국콘텐츠학회논문지, Vol.16, No.9, pp.94-104, 2016.
- [6] 이재완, “지역사회복지계획의 이해,” 한국사회복지행정학회 학술대회 자료집, Vol.2013, No.4, pp.37-57, 2013.
- [7] 함철호, 박태영, 이재완, 류만희, 채현탁, 김종건, “지역사회복지계획 중장기 발전 방향에 대한 탐색적 연구 : 시·군·구 지역사회복지계획 담당자들의 인식을 중심으로,” 한국지역사회복지학, Vol.46, pp.255-285, 2013.
- [8] 강세현, “제주시 청소년정책의 핵심사업 분석:제3기 지역사회복지계획을 중심으로,” 제주도연구, Vol.43, pp.213-267, 2015.
- [9] 이재완, 김승용, “연차별 지역사회복지계획 시행 결과 평가 매뉴얼개발,” 한국지역사회복지학회 학술대회, Vol.2012, p.87, 2012.
- [10] J. W. Creswell, *Research Design: Qualitative and Quantitative Approaches*, Thousand Oaks, CA:Sage, 1994.
- [11] 서근원, “질적연구 수행의 의미,” 교육학연구, Vol.46, No.3, pp.133-161, 2008.
- [12] 김석웅, “회계학 연구방법론으로서의 근거이론에 관한 탐색적 연구,” 회계학연구, Vol.25, No.3, pp.77-102, 2007.
- [13] 김석웅, *회계학의 해석적 방법론*, 교육과학사, 2007.
- [14] 조우연, 이도희, “사회복지법인 운영 인식의 가설발견적 접근 : 사회복지법인 실무자를 대상으로,” 지역사회복지학, Vol.43, pp.1-30, 2012.
- [15] 김홍규, *Q방법론:과학철학, 이론, 분석 그리고 적용*, 커뮤니케이션북스, 2008.
- [16] W. Stephenson, “Consciousness Out-Subjectivity in,” *The Psychological Record*, Vol.18, p.500, 1968.
- [17] W. Stephenson, *Quantum of Theory of Advertising*. Columbia:Stephenson Research Center, School of Journalism, University of Missouri, 1994.
- [18] R. S. Brown, *The History and Principles of Q Methodology in Psychology and the Social Sciences*, Kent State University, Ohio. 1997.
- [19] R. S. Brown, *Political Subjectivity*, New Haven, Mass.: Yale University Press. 1980.
- [20] 이도희, 이동규, “질적연구방법론을 활용한 비영리회계 인식의 가설 발견적 접근,” 회계연구, Vol.12, No.1, pp.281-308, 2006.
- [21] 김홍규, “주관성(subjectivity) 연구를 위한 Q방법론의 이해,” 서울대학교 간호학논문집, Vol.6, No.1, pp.1-11, 1992.
- [22] 문호성, “사회복지사의 사회적 지지가 직무만족에 미치는 영향,” 한국콘텐츠학회논문지, Vol.14, No.4, pp.180-188, 2014.
- [23] 임동호, 김대석, “지역아동센터 사회복지사의 전문성 인식이 조직헌신에 미치는 영향,” 한국콘텐츠학회논문지, Vol.14, No.11, pp.196-204, 2014.
- [24] 송지현, “지역사회복지네트워크 효과성에 관한 연구: 지역사회복지네트워크 참여자들의 인식을 중심으로,” 사회복지정책, Vol.43, No.2, pp.215-239, 2016.
- [25] 정원희, 최종일, “사회복지사의 전문성이 서비스 질에 미치는 영향 연구,” 한국콘텐츠학회논문지, Vol.18, No.7, pp.350-361, 2018.

저 자 소 개

이 도 희(Doh-Hee Lee)

정회원



- 2019년 3월 현재 : 충남대학교경영학부 초빙교수, 공주대학교 사회복지학과 박사과정

<관심분야> : 경영학 관리회계, 법학, 사회복지학

박 희 정(Hee-Jung Park)

정회원



- 2019년 3월 현재 : 공주대학교 사회복지학과 박사과정

<관심분야> : 사회복지학

김 원 세(Won-Se Kim)

정회원



- 2019년 3월 현재 : 충남금산지역 자활센터 센터장, 공주대학교 사회복지학과 박사수료

<관심분야> : 사회복지학